

‘부패·공익신고센터’ 기능 개편

전북교육청, 제보자 보호 강화 등 위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신고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센터’ 기능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공무상 부정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갑질 및 소극행정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 △부패행위 △공공재정환수 등 복지 부정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 등 총 8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신고 창구 간소화에 중

점을 뒀다. 기존 교육청 누리집에 산재해 있던 신고 통로를 유형화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신고는 감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침해와 부패행위,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신고하기’로 통합하고, 갑질행위와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와 각종 비리를 익명 또는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 제보 창구’와, 내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 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창구’도 통합해 제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부패·공익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부패 공익저해 요인들은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위기의 국립대, 일본 대학에서 해법 찾다’

전북대신문, 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신문이 ‘위기의 지방국립대, 일본 대학에서 해법 찾다’ 기획으로 2025년 언론진흥기금 기획취재 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년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획취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학 언론을 위한 별도 부문을 도입, 전국에서 7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신문은 이번 기획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국립대 현실에 주목했다.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고 특성화에 성공한 일본 지방대학을 직접 취재할 계획이다.

학생기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취재비를 지원받아, 여름 방학 동안 호쿠리쿠대학교, 교토대학교, 규슈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관계자와 학생, 지역민 등을 인터뷰하고 심층 기사를 작성한다.

기획취재 결과물은 2025년 9월 이후 전북대신문과 전북대신문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전북대신문 이예령 편집장은 “심층 취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학생기자들과 기획서를 준비했다”며 “취재를 통해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6일 우석대학교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2주기 대학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LiFE 2.0) 성과공유회'가 열린 가운데, 박노준 총장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성인학습자 중심 혁신모델 공유·평생교육 미래 논의

우석대, LiFE 2.0 성과공유회… 지역 중심 지속가능 성장전략 확장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16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2주기 대학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LiFE 2.0)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 우석대학교가 성인학습자 중심의 고등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축적한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RISE 사업과의 연계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박노준 총장과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 박병주 전국평생교육대학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지역 대

학 관계자와 평생교육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등·평생교육! 지역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성과공유회는 박병주 회장의 LiFE+RISE를 주제로 한 특강에 이어 대학생활 시기 공모영상 시청,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의 LiFE 2.0 사업 성과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LiFE 2.0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교육 모델을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대학교는 LiFE 2.0 종합평가에서 구축형 전국 2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상부한 지역 평생교육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헌신과 함께 지역사회와 호흡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앞으로도 성인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사회통합형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고등·평생교육 허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유희태 완주군수가 축하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급식종사자 건강증진 위해 힘 모은다

전북교육청, 전북대병원·대자인병원 등 도내 폐암검진기관 12곳과 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5층 회의실에서 도내 12개 폐암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전북대학교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동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고창종합병원, 부안성모병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시 각급 학교(기관)와 폐암검진기관의 업무를 겸감하고, 수검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협약 내용은 △폐암검진(저선량 흉부CT 촬영) 단가 △검진비 정산 간소화 △검진 결과 보고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추가 검진 지원 안내 등이다.

이번 협약 사항은 올해 6~10월 계획 중인 급식종사자 폐암 추가 검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5층 회의실에서 도내 12개 폐암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추가 검진을 희망하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급식종사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CT 촬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기 부교육감은 “급식종사자 건

강관리를 위해 폐암 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협업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 학교 관리자 대상 인권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7일 전주평화의전당 유함강홀에서 인권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교장(감), 행정실장 등 2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학교 조직의 리더인 관리자들이 인권 감

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정화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인권 사안과 그에 대한 관리자의 역할, 인권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한다.

구 교수는 다수의 인권 교육 연구 및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5 RISE 사업 선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지역의 협력적 추진 사업이다.

이에 전주교육대학교는 2억원 규모의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서학 문화·예술·교육지구 조성 사업과,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늘봄 교육에 선정됐다. 이날 말 RISE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국어문화원

‘도 우리말 가꿈이’ 모집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오는 25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우리말 가꿈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우리말 가꿈이는 세종 나신 날(5월 15일)과 한글날(10월 9일)을 비롯해 한글 관련 기념행사와 홍보에 참여하고, 매월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모듬별 활동을 진행한다. 모듬별로는 공공언어 다듬기, 지역어 활성화,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우리말 콘텐츠 제작 등 희망 분야를 선택하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korean.jaac.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orean5@daum.net)로 신청하거나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을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이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원 관계자가 수련원 내 세워진 세월호 등대에서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양안전 대응 능력 키운다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체험 프로그램 다채
세월호 교훈 등 되새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원장 장기선)은 해양안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4D상영관에서 선박사고 후 구조되는 가상의 이야기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입체적인 영상과 진동·바람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활용해 실제 사고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제공,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해양안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상징적인 공간도 마련됐다.

그 중 하나가 ‘세월호 등대’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교육청이 자체 제작해 설치한 구조물로, 학생들이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수련원 한편에는 세

명의 전주고등학교 학생을 기리는 추념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 1997년 7월 21일 변산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어린이 10여 명을 구조한 뒤 자신들은 탈출해 끝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전주고 1학년 정인성, 신준섭, 장만기 학생이다.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를 기념하고자 추념비를 조성했다.

학생들은 추모 공간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추도하고, 전주고 의인 3인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며 해양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장기선 원장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및 재난 상황 발생시 우리 학생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과란사다리’ 호남·제주 주관대학 선정

전북대, 자교생 51명 등과 해외 대학·기업 연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5 과란사다리 사업’ 호남·제주권역 주관 대학에 선정됐다.

과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어학연수 및 글로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연속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자교생 51명과 호남·제주권역 타교생 9명을 함께 선발해 하계 방학 기간 4~5주 동안의 해외 대학 연수 및 기업 연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학생에게는 1인당 총 525만 원

의 경비가 지원된다. 지원 비용은 한국장학재단과 전북대가 공동 부담하며, 대학 프로그램비, 항공료, 기숙사비 등 연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오는 25일까지 전북대 국제협력부로 신청하면 된다.

조화립 국제처장은 “전북대와 호남·제주권역의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 책무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내 교원 37명, IB PD 워크숍 참여

도내 IB 관심·후보학교 소속 교원 37명이 지난 11~13일 부산국제외국인 학교에서 열린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 주관 4월 정기 워크숍에 참가했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IB PD(Professional Development)로 불리는 이 워크숍은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운영 중인 학교의 교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IB0 주관 워크숍이다.

전북 지역의 26개 IB 운영학교 교장 및 교사가 함께 참여한 첫 워크숍으로, IB 실행 기반을 교육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IB 철학, 프로그램 구조,



수업 설계 및 평가 체계 전반에 대해 3일간 대면 집중 연수를 이수했다. 이수자는 모두 IB0로부터 공식 이수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편 전북에서는 현재 31개교가 IB 관심 또는 후보학교로 승인됐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IB 운영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장은성 기자